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7회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나눔공모전 수상작 소개



서울대학교발전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CREATE
TO
NOW

나눔을 이루는 꿈 *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목 차

심 사 평	심사위원장 정예영 교수	07
수 상 소 감	최우수상 한서연	11

수상작 소개

최 우 수 상	나눔, 나도 할 수 있어 :)	15
우 수 상	나에게 꿈과 희망을 준 장학금	21
	나를 위한 나눔	25
장 려 상	나눔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31
	나눔이란 물질을 넘어 타인의 마음을 채우는 것	35
	제가 한 만만한 기부, 누구나 할 수 있기를	39
	장학금 수혜자에게 보호아동 후원자로	45
	천원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따뜻한 밥 한끼입니다.	47

제7회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나눔공모전 수상작 소개

심사평

심사평

정예영 교수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금년에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나눔 공모전의 주제가 발전재단 기부를 넘어 일반적인 나눔의 경험담으로 확대되었고, 천원의 식사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보다 폭넓은 일상 속의 실천들이 훈훈하게 펼쳐졌다. 공동체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물질로 표출되는 것만은 아니며,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그 마음이 어떤 거창한 결심, 행위 뿐만 아니라 소소한 몸짓, 습관에 의해서 구현되어, 그것들이 모여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치를 보여주었다. 한 가지 더 눈에 띄었던 것은, 수상작 중 교직원들의 수기가 세편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평소에 철두철미하게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학생들의 어려움에 보내는 응원, 그들을 향해 뻗은 손길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다.

최우수작은 천원의 식사 나눔을 실천한 학생의 수기이다. 끼니 해결은 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당면한 문제인 만큼, 학교에서의 식생활 이야기와 더불어 교우들과 나눠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과정을 그린 진솔한 글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살 것이다. 최우수작이 학교 생활 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 나눔을 보여줬다면, 우수작은 본인의 힘들었던 경험을 현재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봉사, 기부 등 여러 가지 활동으로 승화한 감동적인 사연이다. 진정한 나눔의 본보기인 동시에, 우울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한 후 오히려 남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입장이 되었다는

제7회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나눔공모전 수상작 소개

수 상 소 감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또 하나의 우수작의 저자인 학생도 비슷한 맥락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도 하며, 훗날 소외된 환경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청소년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교화하려 노력하는 법관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런 결심의 기저에 본인에게 장학금을 증여한 교수님에 대한 고마움이 자리하고 있다는 데서 나눔의 선순환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장려상에는 작은 실천들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글들이 많다. 역시 천원의 식사, 만만한 기부처럼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나눔도 누군가에게 커다란 희망이 된다. 한 글에서 역설하듯이, 기부하기 위해 반드시 부자이거나 성공한 사람일 필요가 없다. 그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우선이다. 쪽방촌의 어르신들을 방문하여 봉사하는 교직원의 글을 읽고 가장 큰 나눔이란, 돈이나 물질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익명의 이웃들에게 자신의 시간과 관심, 즉 삶의 일부를 할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봤다.

봉사와 기부를 통해서 결국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이들이 많았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자랐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꼭 장학금이나 기부의 수혜자가 아니어도 부모님, 선생님, 친구의 지원, 지지로 인해 성장했고, 현재도 일일이 보이지는 않지만 무수한 이들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친절, 호의가 있기에 생활이 가능하다. 사회는 이렇듯 내가 모르는 사람들까지 서로서로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연대의 망이다. 남을 돕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돕는 것이다.

금년에도 나눔 공모전은 편협한 세계에 갇혀 이기적으로 사는 내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상소감

최우수상 한 서 연

솔직히 글을 쓰면서 수상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최우수상까지 타게 될 줄 정말 상상도 못 했습니다. 손녀의 수상 소식을 들으신 친할머니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뜻밖의 감사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상 소감은 생각지도 못한 거라 무슨 말을 써야 할지 고민하면서 저의 글을 다시 읽어봤는데, 다시 봐도 저의 나눔은 지극히 평범한 것 같습니다. 큰 액수를 기부한 것도 아니고,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 기부한 것도 아닌, 그저 내가 받은 걸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보내고 싶다는 소소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의 나눔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후배들도 이러한 혜택을 누리면서 조금 더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혜자로서, 선배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글을 읽고 난 후, 요즘 저의 생활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나눔을 할 때, 제가 기부하는 금액은 정말 적은데 웬지 크게 느껴지지만, 친구들이랑 밥을 먹거나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살 때는 그 액수가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고 쉽게 사게 됩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돈이 가져오는 행복감과 만족감이 나를 위해 소비할 땐 직접적으로 느껴져서 돈의 액수가 상관없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남에게 나눌 때는 그 행복이 느껴지지 않아서 돈의 액수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나의 나눔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닌, 나눔을 받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더 기쁘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제가 실천한 나눔은 거창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나눔입니다. 그저 나의 나눔이 불러올 다른 사람의 행복에 내가 행복해지는 마음만 있으면 기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이 꼭 금전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도움, 친절, 배려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양도 내가 베풀고 싶은 만큼만 해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듯, 나눔은 나누고자 하는 마음과 나누는 행동만 있으면 충분하니까요.

저도 앞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제 나름대로 나눔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싶습니다. 지하철에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나보다 편한 곳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고, 과제를 할 때 노하우가 있으면 서로 알려주고,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저의 나눔들은 정말 사소하지만, 나눔을 통해 느끼는 저와 다른 사람의 행복은 생각보다 크다는 걸 믿고 느끼면서 꾸준히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

2024.02.29. 공모전 수상자
한 서 연

제7회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나눔공모전 수상작 소개

최우수상

나눔, 나도 할 수 있어 :)

한 서 연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오랫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부담되었던 지출이 식비였습니다. 집을 나서면 기본적으로 점심, 친구들과 약속이 있으면 저녁 식사까지 밖에서 사 먹어야 했기 때문에 예전에 가게부를 쓸 때 매월 지출 1위는 거의 식비였습니다. 특히 서울의 외식비는 기본이 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용돈과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제게는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천원 학식은 1학년 때부터 고마운 존재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평소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고, 메뉴를 고를 때 많이 고민하며, 식비에 부담을 느끼는 제게 천원 학식은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1, 2학년 때 점심을 같이 먹는 친구도 천원 학식을 애용했기에 거의 매일 점심은 천원 학식을 먹었습니다. 식비에 부담이 없는 것은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단백질의 비중이 너무 적다는 느낌도 종종 들었습니다. 물론 단가가 높은 고기 대신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하려는 조리사님의 노력은 느낄 수 있었지만, 매끼를 천원 학식으로 먹기에는 영양의 균형이 깨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고마움과 아쉬움을 가지며 1, 2학년을 천원 학식과 함께 보내고, 3학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었고, 이후 개인적인 공부 때문에 2년을 휴학하면서 거의 3년 6개월 동안 학교에서 식사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휴학을 마치고 2023년 2학기에 복학했을 때, 이전에 같이 식사했던 친구는 점심시간이 맞지 않아 주로 혼자 식사하면서 거의 매

번 천원 학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 천원 학식을 먹을 때는 이전에 느낀 아쉬움이 조금 해소된 듯했습니다. 반찬에 고기나 해물 반찬이 많이 나왔고, 국이 주메뉴로 나왔어도 그에 못지않게 맛있는 반찬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시기상 ‘천원의 식사’시행 이후에 이뤄진 것 같아서 천원 학식을 먹을 때 기부한 분들께 고마움을 느끼면서 식사했습니다.

서울대 학생으로서 천원 학식을 비롯해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면서 매번 도움을 받는 처지에서 주로 지내왔는데, 고학번이 되거나 웬지 후배들에게 뭐라도 나눠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별 과제를 할 때, 같이 준비한 학우들에게 소소한 간식을 나눠주었습니다. 간식을 받은 학우들이 고맙다고 인사해주고,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는 걸 보면서 웬지 귀여우면서 뿌듯하고 제가 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 주변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나누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 방학 때 감사하게도 영국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가면서 착륙 직전에 유니세프에 기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외면하고 지나갔을 텐데 마침 한국에서 챙겨온 외국 동전들이 있었고, 적은 돈이지만 제가 쓰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된다면 더욱 뜻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기부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통해 작은 것부터 나의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는 것이 얼마나 보람찬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평소 크게 도움을 받은 천원 학식에 기부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학부생이라 변변한 수입은 없지만, 선배로서, 많은 도움을 받는 서울대생으로서, 작은 나눔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으로서 기부를 실천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전에 서울대학교 신문에서 ‘천원의 식사’홍보 지면을 보았을 때, 학생회관에 키오스크가 있

어 쉽게 기부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을 때, 식사 메뉴 전시장 옆에 있는 키오스크를 먼저 들렸습니다. 화면을 선택하니, 천원부터 5천 원, 만 원 등 작은 단위부터 큰 액수까지 있는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부담 없이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소소하게 5천 원을 기부했는데, 키오스크로 기부하니 일반 물건을 결제하는 것처럼 매우 간단했습니다. 그렇게 간편하게 기부하고 맛있는 천원 학식을 먹었습니다.

기부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웬지 어제 점심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같이 점심을 먹었던 친구가 학기 말이 되니 점심시간이 맞는 날이 생겨서 기부 전날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천원 학식을 먹었을 텐데,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고, 좀 더 맛있고 먹고 싶은 걸 먹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하연 식당에서 5천 원짜리 점심을 먹었습니다. 어제는 친구랑 같이 맛있게 식사했는데, 오늘 기부하면서 5천 원 식사 대신 천원 학식을 먹으면서 나머지 금액을 기부하면 4명의 학우에게 식사를 선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맛있고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도 좋지만, 내가 먹고 싶은 걸 조금 내려놓고, 나의 식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더 뿌듯하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물론 요즘 천원 학식도 맛있어져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서도 즐겁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지만요:). 그리고 제가 기부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 보이지만, 그것이 가져올 효과를 생각할 때, 기부금 액수 이상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나눔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나눔은 금액에 상관없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며,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

제7회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나눔공모전 수상작 소개

우수상

나에게 꿈과 희망을 준 장학금

김 준 혁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얼굴도 모르는 학생에게 선뜻 장학금을 쾌척해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작년 초, 저는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를 합격한 기쁨을 만끽하기도 잠시, 아버지의 해고와 어머니의 암 투병으로 최근 몇 년간 정신적,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어머니께서 운영하던 가게의 수입도 80%이상 줄어 미국에서 공부하던 누나도 어쩔 수 없이 학업을 중단하고 돌아와 현재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전업으로 돈벌이에 나서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작년 4월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여 국가 급여를 받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과외, 근로장학, 튜터링 등 닥치는대로 하였으나, 그렇게 되다보니 공부를 할 시간이 거의 없어서 미래가 너무 막막하고 암울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학교에서 지원하는 선한인재 장학금을 받게 되어 생활고와 심적 부담을 한시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국가장학금이든, 교내장학금이든, 외부장학금이든 어떤 분이 주시는지는 그동안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이렇듯 어려운 사정에 당면하고, 그리고 기부자가 우리 학교 교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학교와 교수님께 더 큰 감사와 애정을 느낍니다.

저는 법관이 되는 것이 꿈이고, 그래서 어려운 가정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진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가난한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대학 입학 이후 꾸준히 지역아동센터에 나가 봉사활동(누적 봉사시간 1,887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관심과 애정을 못 받으면서 비행하거나 나쁜 길로 빠지는데, 사회에는 이 아이들에 대한 용서와 관용의 기회가 적습니다.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처음부터 성품이 나쁜 아이들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은 애정 결핍으로 부모와 선생의 관심을 끌기 위해 튀는 행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러한 아이들의 비행에 대해 냉담한 편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용서와 교화의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소년원과 교도소를 왕래하며 현실에 적응할 용기를 잃어버리는데, 저는 이러한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를 졸업하면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관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법관으로서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하되,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서, 그들 역시 우리의 품으로 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고 하지만, 저는 ‘꿈도 곳간에서 난다’고 생각합니다. 돈벌이를 하러 하루살이마냥 온종일을 밖에 나가 있으면, 꿈이나 비전을 생각하기는커녕 사람이 계속해서 우울해지게 마련인데,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소 경제적, 심적 여유가 생기니 이제 내 꿈을 돌아보며 마음을 다시 굳건하게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의 마지막을 알바가 아니라 공부로 마무리하고 나면,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자아성찰을 해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법관이 하고 싶은지, 그래서 내가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가 명확해 집니다.

그리고 절박한 상황에서긴요한 장학금을 받으면 액수가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제 꿈을 위해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껏 감사하고 따뜻해지고, 학교와 동문들의 강력한 지지가 결국 제가 언젠가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을거라는 믿음을 줍니다. 비록 지금 쓰러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재기할 수 있을거라는 힘과 용기가 샘솟아 납니다.

제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보다 꿈에 한걸음 나아갈 수 있게 장학금을 쾌척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수상작 내용 일부를 편집하였습니다.

나를 위한 나눔

이 소 희
법학대학 법학과

누구에게나 있는 인생의 힘든 순간, 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이 나눔의 출발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질적인 여유를 생각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아마 선뜻 기부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부분은 월급을 모아 집을 사고 가족들을 위해 쓰는데도 부족한 때가 많기 때문이다. 시간도 마찬가지다. 직장에 다니고 가정생활을 하는데도 모자란 시간을 투자해 재능을 나누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내가 힘들었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달라진다. 지금 그때의 나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그때 나에게 정말 간절했던 도움을 그에게 건네주고 싶다. 그건 약간의 금전일 수도 있고, 한마디 따뜻한 위로일 수도 있고, 청사진을 보여주는 조언일 수도 있다. 그게 무엇이든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걸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다.

내 경우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학업으로 인한 우울증, 그리고 우울증이 길어져 생긴 은둔형 외톨이 생활이었다. 그때 나는 어떻게 벗어나야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앞길은 그저 캄캄하고 어둡기만 했다. 누군가에게 나는 아직 기회가 많은, 전도유망한 청년으로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보는 나는 한없이 초라하고 무능력했다.

나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했다. 하나는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경험자의 조언이었다. 우울증에서 치유되

고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뭔가 재미있고, 남들과 함께할 수 있고, 심리 치료의 효과도 있는 프로그램이 간절히 필요했다. 그리고 암울하기만 한 나에게 인생의 다른 진로를 보여줄 수 있는 누군가의 조언도 받고 싶었다.

나는 학교에서의 심리상담 프로그램, 닛트 컴퍼니의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서 우울증이 많이 나아졌고 다시 학업으로,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진로에 관한 조언을 얻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대신 나는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지면서 얻은 힘으로 내 앞길을 혼자 개척해냈다. 낯선 땅에 던져진 씨앗처럼 처음에는 불안정하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알게나마 뿌리를 내리고 나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나는 다행히 벗어났지만, 아직도 힘든 상황 속에 놓인 청년들이 많다. 예전의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청년들을 생각하면 그때 나에게 필요했던 도움들을 주고 싶은 마음이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그래서 나는 지금은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을 돕는 닛트 컴퍼니에 조금씩 기부를 하고 있다. 개인의 작은 후원들이 모여 마음이 힘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하나둘 개최된다는 것을 알기에 보람을 느낀다.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몇 개 단체들을 위해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청년들의 자살 예방을 위한 서포터즈로 활동도 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멘토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내가 우울증에서 벗어난 방법, 뒤늦게 취업하게 된 이야기를 소개하는 책도 썼다. 남들이 흔히 거치는 진로에서 이탈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가장 힘들었을 때의 나에게서는 다른 사람들의 이런 수기가 간절했으니까.

나눔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사람들이 각자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인생을 사는 만큼 나만 해줄 수 있는 나눔들도 많은 것 같다.

선풐 나눔에 마음이 가지 않는다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를 권하고 싶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당신은 어떤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했나요?” 그러면 누구에게, 무엇을 나눠주고 싶은지가 바로 떠오를지도 모른다. 나눔에 대한 나만의 동기도 생길 것이다. 그렇게 시작한 나눔은 과거의 나에게 내미는 손이고, 힘든 상황을 헤치고 열심히 살아온 나를 위한 자기연민의 마음이기도 하니까.

제7회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나눔공모전 수상작 소개

장 려 상

나눔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김 수 경
서울대학교발전재단 기부자

‘내가 이 돈을 내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실천하세요.’

그 한마디가 나를 움직였다. 먼 과거의 나는 기부는 여유가 될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나아지면 해야지. 부자되면 해야지. 늘 그렇게 막연한 다짐을 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부순 사람이 있었다. 어느 연예인이 기부 단체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을 때 남긴 소감을 들은 뒤로 나는 기부를 행동에 옮기게 되었다.

수 년 전, 나는 서울대학교발전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했었다.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였다. 방법만 알아본 뒤 홈페이지를 빠져나왔다. 나중에 내가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 꼭 해야지 하고 의지를 다졌다.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기억만 할 뿐 기부한 일은 없었다. 어느 연예인의 독려 이후로 여러 단체에 기부를 시작했지만 서울대학교발전재단에 돈을 내기엔 여전히 망설여졌다. 이번에도 하릴 없이 홈페이지만 빙빙 돌다 빠져나오던 찰나, 스스로의 목소리가 나를 붙잡았다. 나중에 언제 할래. 언제쯤 여유가 생길 건데, 언제 부자될래? 맞다. 나중에로 미루다 한 번쯤은 반드시 후회할 일이 있을지 모른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행동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생각에 나는 잠시간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렇다면 어떤 곳에 나의 돈이 쓰이면 좋을까. 연구 논문을 쓸 당시의 내

가 생각이 났다. 연구비가 부족해 곤란했던 경험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니 연구기반조성기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솟았다. 팔호 안의 '든든한 기부'라는 표현도 웬지 마음에 들었다. 그래, 언제까지 다음으로 미루며 고민만 하고 있을 수 없지. 기부 약정을 하자. 호기롭게 약정을 시도했지만 또 다시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폐척'할 수 없는 나의 현실이 머리 속에 맴돌았다. 연약하고 안쓰러운 나의 통장 잔고, 얼마 전 급작스레 전해 들은 계약 종료 통보가 마음의 갈등을 만들고 있었다.

‘내가 이 돈을 내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실천하세요.’ 그의 말이 나를 또다시 설득시켰다. 든든한 기부라는 이름에 걸맞은 액수는 아니지만 연구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약정을 마쳤다. 약정을 마치고도 나는 한참을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부끄러웠다. 학생들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데 여전히 사회초년생의 지위에 머물러 있는 내가 싫었다. 여러 고민할 것 없이 시원스레 기부하지 못하는 개인 상황 또한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마음먹은대로 약정을 마친 것,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후회도 들지 않았다. 그래, 다시 시작이다. 다가오는 새해에 열심히 뛰어서 규칙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기부하자. 올해와는 다른 삶을 살자. 그렇게 다짐하면서 컴퓨터 전원을 켰다.

어제, 후원하던 단체 중 한 곳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기부 금액을 증액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다. 어려움에 처한 사례들을 하나씩 말씀해주셨다. 증액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생각이 들었고 좀 더 신중히 고민하게 되었다. 내가 기부 얘기를 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말한다. 너 부자야?

하지만 기부는 부가 동반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공하지 않아

도, 복권에 당첨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기부이자 나눔이다. 코로나19를 전후한 몇 년이, 지금의 개인적 고난이, 못 연예인들의 말들이 나를 바꾸었다. 적은 금액일지라도 나누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자신은 없다. 삶이 내 뜻대로 흐르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은 금액이더라도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란 자신은 있다. 그간의 다짐 때문이라도 나는 오늘보다 내일 더 열정적으로 살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는 나 자신에게 좀 더 떳떳할 수 있길 바랄 뿐이다.

나눔이란 물질을 넘어 타인의 마음을 채우는 것

김 진 주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현재 교직원으로 일하며 쪽방촌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영등포역 6번 출구를 오르자 여러 알 수 없는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아무렇게나 지어진 여러 셀 수 없는 단칸방들이 골목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을 막상 들어가 보니, 쪽방촌에서의 이 삶에 비해, 제가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이 얼마나 편하고 안정된 것인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옷 나눔을 담당했는데 솔직히 별 수고로움 없이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저 안 입는 옷들을 한 뭉텅이 모아 손쉽게 쪽방촌에 기부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봉사자가 적은 관계로 저는 배식 인원에 투입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한눈에 봐도 사람들이 멀리할 것 같은 느낌의 노숙자들이 줄지어 배식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코를 뚫고 밀려 들어오는 악취와 뜻을 알 수 없는 무례한 말을 저에게 건내 당황이 됐었지만 저는 배식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집을 가려던 저에게 봉사 팀장님께서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혹시 저분들이랑 같이 밥 먹어 줄 수 있을까요? 말동무가 필요해 보여서.”
저는 배식만 끝내면 저의 일은 끝이 났다고 생각했고 하루빨리 이 악취 나는 곳에서 벗어나, 편안한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의 말을 듣고 보니, 그분들은 안정감과 편안함이라곤 아예 찾아볼 수 없는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또 사회와 철저히 분리되어 혼자 외롭

고 고독하게 식사를 하는 모습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고 제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편안함을 당연해하던 저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배식을 받은 어떤 한 분에게 다가갔고 그분은 눈이 멀었지만 밝은 성격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군대 제대 날 자동차 사고로 눈을 멀게 되었고, 가족들과 또 직장에서 버림받아 어디에도 오고 갈 곳이 없어 쪽방촌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다가와 준 저에게 너무 고맙고 또 얼마만에 다른 사람과 함께 앉아 밥을 먹는지 모르겠다며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선 저에게 손녀딸 같다며 고기반찬을 집어 제 밥에 놓아주셨습니다. 당시 조금 낯설고 굳이 먹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정말 별것도 아닌 평상시의 일상조차 누리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 마음에 저는 너무 맛있다며 할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선 모두가 피하는 자신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해주어 너무 고맙다며 저를 안아주시고 울먹거리셨습니다. 저는 앉아서 밥을 같이 먹었던 것뿐인데, 저의 이 시간조차 고마워하는 할아버지를 통해 교만했고 어리석었던 제 마음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쪽방촌에서 제가 했던 옷 나눔을 둘째치고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따뜻하고 진심어린 마음 그리고 텅달아 채워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단순히 나눔이란, 가장 현실적인 것, 내가 가진 물질적인 것만 도우면 되는 것 이라고, 귀찮으니 적당히 시간만 떼우면 되는 것 일뿐 내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만 생각 했는데 진정한 나눔에는 이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과 진심을 나눌 때, 타인이 갖고 있던 여러 영역의 부채를 내 마

음으로 채워줄 수가 있겠구나. 아주 작은 것만으로도 진심을 다할 때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었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눔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때, 나눔이란 그저 일방적인 것, 내가 받는 건 없고 그저 내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 이라고만 생각했던 저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잘난 것 하나 없는 내 자신이 그들보다 조금 더 누리고 있는 것, 그것들을 함께 나누며 나의 마음까지 나눌 때 보람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쪽방촌에서 만난 할아버지의 용기 있는 삶이, 두 눈 멀쩡하고 따뜻한 집이 있는데도, 작은 것 하나에 불평불만 가득했던 제 삶이 반성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분과 삶을 나누며 내 인생 가운데 불평하며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은 없었는지, 감사를 놓쳤던 지점은 없는지, 조금 더 내 인생 가운데 감사하며 또 용기내어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저는 쪽방촌을 다시 방문했고, 제가 남산에서 봉사했던 시각장애인 마라톤 단체에 그 할아버지를 초청해, 함께 팔에 줄을 묶고 10km를 뚝 끊고 감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쪽방촌에서 밥 한끼 함께 하며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을 넘어 진심 있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외로움, 상실, 낙심, 허기짐이라는 부채를 채워주고 한 번쯤은 함께 돌아봐줄 수 있는 결심과 마음이 아닐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음, 그 위로와 진심을 함께 나눌 때 타인도 나를 통해 채워지고 텅달아나 또한 타인을 통해 채워지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나날이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지금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의 크고 작은 나눔의 현장 가운데 열심히 참여하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노력해야겠습니다.

내가 한 만만한 기부, 누구나 할 수 있기를

이 태 희
입학본부 입학전형실

안녕하세요. 입학본부 입학전형실에서 근무하는 입학사정관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이곳에서 근무하며 우리 대학에 지원하고 또 입학하는, 무수히 많은 반짝이는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저는 기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학생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게 되었는지를 우리 공동체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널리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기 공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합격자를 모두 발표하고 나면 아주 짧은 순간 찾아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아, 올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입학전형이 마무리되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요. 하지만 그 감각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듬해 봄부터 입학사정관들은 분주히 새 학년도의 입학전형을 안내할 책자나 슬라이드, 영상자료를 준비합니다. 전국 각지의 학생과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을 만나 우리 대학을 홍보하고 입학전형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안내합니다.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을 만나 대학 생활과 입학전형에 대한 경험들을 서로 나누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합니다.

때로는 대면 방식의 진학 지원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기 어려운 섬 지역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 고교를 방문하고 구성원들을 만나 ‘학생부종합전형 고교-대학 연계 세미나’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일 년에 두 번, 봄과 늦은 여름에는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학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글로벌인재특별전형’의 평가를 수행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가을이 찾아오고 입학사정관에게 가장 중요한 수시와 정시 모집의 평가와 전형 운영 업무를 수행합니다. ‘우리에게 가을은 잊혀진 계절’이라고 말하며 서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중에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서울대에 진학할 예비 학생들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공부하며 성장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요. 저는 입학사정관이지만 학생들이 입학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이곳 서울대학교에서 성장한 뒤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까지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이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물론 입학사정관이 학생들과 함께 추진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다만, 개인으로서의 제가 업무를 통해 조명하지 못하거나, 무심결에 지나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모금 중인 장학기금의 구호를 발견했습니다. ‘매월 만 명의 만원이 선한 인재를 만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하고 싶고 연결되고 싶었던 마음 때문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짧고 특별할 것 없었던 이 문구가 별안간 제 마음속에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발전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급여에서 작은 마음을 떼어 학생들을 위한 기부를 약정했습니다. 2016년 여름, 그렇게 저의 후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부를 시작한 뒤로 찾아온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제 자리에서 묵묵히 일했고 약정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반복적인 일들이 점점 견고해졌고 이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훌쩍 지난 2022년 어

느 날, 학교 메일함에 도착한 만만한 기부 안내 자료를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지난 6년간 총 4,583명의 학생들에게 선한 인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료의 끝에는 “모든 학생들이 생활비 걱정 없는 그날까지, 만만한 기부는 계속됩니다.”라는 문구가 실려있었습니다.

사실 2019년에 약정액을 아주 조금 높였습니다. 모금된 총액의 관점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을 정도였겠지요. 그럼에도 ‘만 명의 만원’이라는 구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역시 하길 잘했다.’는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의 식사비 지원을 위한 ‘천원의 식사’ 모금에도 약정을 추가했습니다. 저의 마음이 조금 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괜스레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 갑자기 제가 수백, 수천만 원의 고액 기부를 약정한 것으로 오해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아닙니다. 월 3만 원입니다. 제가 퇴직하는 날까지 매월 만만한 기부 2만 원, 천원의 식사 1만 원의 약정액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눔 공모에 참여를 결심하면서, 그리고 원고를 작성하면서, 잠시 고민에 잠기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 글이 기부 금액에 비해 너무 거창한 내용을 담으려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원고를 작성하다 말고 제출을 포기한 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나누는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이 글이 여러 독자분들의 마음속 어디엔가 가서 닿는다면, 제가 만만한 기부의 구호를 처음 보았을 때처럼 닮은 마음의 또 다른 기부자들과 연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봅니다.

또한 수기를 작성하며 서울대학교에서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문득 제가 현재의 자리에서 수행했던 입학사정관으로서의 직무들은 모두 학생들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

고 만만한 기부 참여를 통해 선한 인재 장학금 조성에 참여하고, 학생들 중에 누군가 겪을 수도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하여, 자신이 원하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일은,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원의 식사 모금에 참여해서 조금 더 다양한 친구들이 적은 부담으로 학교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기 작성을 계기로 ‘시간을 잇는 마음과 행동’의 의미를 저에게도 되새깁니다.

세상에서 입학사정관이라는 직업을 묘사하는 언어는 다양합니다. 그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경계에 서서 둘 사이를 부드럽게 잇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연결이 분절되거나 단절된 상태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언급했던 것처럼 느슨하거나 구불구불하더라도 학생들이 묵묵하게 걸어왔던 길 위에 남겨둔 점들을 연결(Connecting the dots)하는, 부드럽고 유연한 곡선을 보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업무 담당자로서 입학본부 웹진 ‘아로리’에 실릴 인터뷰 자료를 검토하던 중에 발견한 한 학생의 말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공부의 길은 길고 외로우니 반드시 친구와 함께 걸으라.”는 후배들을 향한 조언이었는데요. 이제 막 학부 1학년이 된 신입생의 말치고는 무척이나 따뜻하고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일을 하다가 도리어 위안을 얻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비단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걷는 모든 길들이 이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생활의 길도, 사회인으로서의 길도, 기부의 길도 말입니다. 그 모든 길들은 혼자서 걸을 때보다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동료들과, 끝으로 닮은 마음의 기부자들과 함께 걸을 때, 더 힘차고 멀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연대는 힘이 세니까요.

지난겨울, 세상을 뜨겁게 달궜던 ‘어른, 김장하’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경남 진주에서 오랜 세월 한약방을 운영하며 거둔 수익의 대부분을 기부했던, 그러나 대중 앞에는 나서지 않았던,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의 자취와 의미를 찾는 내용이었습니 다. ‘김장하’ 장학금을 받고 성장한 뒤 헌법재판관이 된 어느 수혜자께서 “나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으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언급하며 말을 잇지 못하는 장면에서는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학금을 받고도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해 죄송하다.”는 또 다른 수혜자의 인사에 “우리 사회는 평범한 이들이 지탱해 나간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는 한동안 먹먹해진 가슴을 붙잡고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빌려 부족한 제 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는 어떤 특별한 독지가 한 분의 고액 기부를 통해 풍족히 조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더불어 저와 같은,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축적한 따뜻한 마음이 더해질 때 더욱 번영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제가 한 만만한 기부를 누구나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이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가 닿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입학사정관으로서의 직무와 후원자로서의 기부를 통해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잇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빛으로 반짝이고 있는 학생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학금 수혜자에서 보호아동 후원자로

홍 서 희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저는 2021년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교내 장학금과 서울대학교발
전재단과 연결된 장학금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뿌듯하고 보
람찼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부
끄럽지만, 새내기 시절에는 어린 마음에 스스로의 성취에 대한 당연한 보
상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따 낸’ 장학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장학금에 담긴 진정한 의미와 감사함을 깨달은 것은 몇 년 후였습니다.
주변에서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하나둘 휴학하는 다른 학교 친구들을
본 이후였습니다. 모두가 부모님으로부터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은 아니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생활비 걱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
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좁은 세계에서만 살고 있던 저를 일깨우
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장 필
요했던 것은 아니지만, 20대 청춘을 아르바이트로 보내는 친구들을 보며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대학교는 국가 장학금과
서울대학교발전재단의 지원으로 장학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있지만, 그렇
지 못한 학교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아닌 요소
로 이런 부분까지 갈린다는 것은 제게 큰 안타까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받은 장학금의 참된 값어치를 깨닫게도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학업을 포기하지 않게 해 주는 큰돈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받지 못해 설움이 되는, 그런 돈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자 과거의 제가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온전히 제 힘으로 성취한 것은 없으면서, 주변 사람들의 배려와 도움을 좌시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걸었던 길에 다른 사람들의 호의와 나눔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저도 그 따뜻함을 돌려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즈음 윤리교육이라는 전공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윤리 이론에 대해서는 배우고 있지만 정작 나눔과 사랑을 실천한 경험은 적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향의 생각은 제가 성인이 된 후 첫 정기후원을 결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회적인 기부를 해본 적은 있지만,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결심은 처음이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디딤씨앗통장’을 선택했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처럼 취약계층 아동을 직접 후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된 이후에 자립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점, 특히 주로 아이들의 학자금인 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대단치 않은 금액을 보내고 있지만, 제가 쓰는 돈 중 가장 값진 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 모를 3세 여자아이가 성장해서, 배움을 이어나갈 상상을 하면 절로 벅차옵니다.

저는 장학금의 수혜자에서, 보호아동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발전재단 후원자 분들의 따뜻한 사랑을, 저도 이 사회의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눔이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행에는 전염력이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추운 날씨가 매서운 연말이지만, 나눔과 기부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길 기대해 봅니다.

천 원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따뜻한 밥 한 끼입니다.

홍 지 현

공과대학 미래인재교육연구단

저는 매일 아침 푸르른 관악산 경치를 보며 출근하는 서울대학교 행정직원입니다. 출근하여 사무실 의자에 앉아 부지런히 업무를 하다 보면 금방 점심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하며 맛있는 점심 메뉴를 생각하면 기분이 들뜨다가도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한 끼 사비에 살짝 멈칫하는 순간이 종종 있습니다. 저처럼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도 점심값 걱정이 되는데 학생들은 오죽할까요. 밥값 걱정이 빠르게 우리들의 일상 속으로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걱정 속에도 서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천원의 식사” 포스터를 마주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고봉밥, 고소한 미역국, 몽글몽글한 마파두부, 새콤한 콩나물무침, 그리고 한국인에게 빠질 수 없는 소울 반찬 김치까지! 도저히 천 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밥을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즐거운 식사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 제 마음도 훈훈해집니다. 저는 직원이라 천원의 식사 혜택을 누릴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라도 밥값 걱정 없이 든든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과 학교의 노력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현재만큼 점심값이 부담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때도 “천원의 식사”와 같은 사업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 신분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받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마련하여도, 돈은 항상 부족했었고 결국 먹는 것을 줄여서 돈

을 아끼곤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학생들의 마음과 고민을 십분 반영한 학생 복지 사업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에 감탄이 나옵니다. 건강한 한 끼를 만들기 위해 식단을 작성하고 식자재를 구입하는 영양사뿐만 아니라 사업이 지속될 수 있게 노력한 행정직원 외에도 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기에 천원의 식사 사업이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봐도 천원으로는 책정하기 어려운 식사를 유지해 온 것은 기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분명 재정적으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만 많은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허기를 달래주고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은 천 원의 식사를 통해 매일 나눔의 가치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참여를 못 하였지만 내년에도 천원의 식사 모금 사업이 실시된다면 학생들의 건강한 한 끼에 마음을 보태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천원의 식사”를 천 원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밥 한 그릇에 담긴 소중함을 기억하여 따뜻한 마음을 지닌 선한 인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언젠가 사회에 나간 학생들이 점심을 먹으면서 천원의 식사를 떠올리며 후배들의 식사를 위한 기부로 이어지는 훈훈한 모습도 기대해 봅니다.



서울대학교발전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940동) 2층

전화 02-871-8004 | 팩스 02-871-2458 | 이메일 snuf@snu.ac.kr | 홈페이지 www.snu.or.kr